



최형찬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주 세르비아 대사
- 국방부 국제정책관
-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파견
- 주이라크공사참사관
- 주미국공사참사관
- 한미안보협력과장
- 재외공관담당관
- 주베트남참사관
- 주중국1등서기관
- 주이스라엘2등서기관
- 1990년도 제24회 외무고등고시 합격

I. Prologue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본다. 그때 전공에 대한 뚜렷한 집착이나 미래의 직업에 대한 직업관도 서 있지 않았었다.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학과선택에 고민하고 있던 중에 선생님께서는 선뜻 외교학과를 추천해 주셨고 공무원으로서의 외교관의 길을 걸어보는 것도 인생을 보람있게 채울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거라고 충고해 주셨던 것이다.

이때부터 내게는 외교관에 대한 은근한 애착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그 직업을 수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으니 내 인생의 진로를 정해주신 담임선생님께 대한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다.

II. Freshman

누구나 다 겪었겠지만, 대학교 막 입학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처 배워볼 수 없었던 한국현대사, 말시즘 등을 통한 사회 변혁욕구는 나를 정신적으로 혼란시키기에 충분했으며 고시입문에 대한 생각은 접어두어야 했다. 거의 연일, 5공의 말기적 강압에 맞서 몸으로 싸우는 학생들 틈에서 직접 싸우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양심과 싸우기도 벅찼기 때문이었다.

Ⅲ. Sophomoer

2학년에 들어서면서 나는 자신이 운동권 학생 혹은 폭력혁명의 전위가 될 수 없음을 느끼고 학과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학문적인 무장으로 운동권학생들의 논리로 부터 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다.

한국의 국내정치 그 자체가 바로 국제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시던 당시의 노교수님의 강의는 이미 1학년 때부터 나를 매료시켰고, 그밖에도 점차 깊이를 더해가던 학과강의는 국제정치학에 대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시켜 놓았다. 그렇게 학과공부에 전념하면서 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한번 원없이 공부하며 학생도 가르치는 나의 모습을 가끔씩 떠올려 보곤 하였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적체되어 있는 명문외국대학의 박사인 선배들에 비해서 비좁은 교수자리란 현실은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으며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Ⅳ. Junior

어느덧 3학년도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찾아왔다. 주위에는 벌써 고시공부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었으며 나도 1·2학년 때의 정신적 방황을 많이 정리한 상태였으므로 큰 고민없이 외시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외교관에 대한 나의 꿈은 1·2학년 때의 방향속에서도 끈질기게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폭력혁명의 전위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사회개혁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만큼, 소위 고급공무원의 신분으로 병든 정부와 그에 전염된 병든 사회를 치유해야 하겠다는 나의 자기 합리화가 확고해지고 부터는 2학년때 나이 제한으로 시험을 못치른 상황을 한탄까지만 했다.

2학년 때까지는 중앙도서관 8열람실을 이

용했었지만 3학년에 들어와서는 법대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하숙집이나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답답하며 체질상 맞지를 않았고, 또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던 터라 하숙집과 도서관을 매일 오가는 생활이 결코 지겹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하는 것이 몸에도 정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물론 자기체질에 맞는 공부방식이 따로 있겠지만, 지금 고시공부를 시작하는 입문자들에게는 학교도서관 이용을 권하고 싶다. 혹자는 등·하교시간을 빼앗긴다고 이야기하고 또 혹자는 동료들과 어울려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도서관이용을 기피하지만, 자기가 조금만 근면하고 성실하다면 아침 일찍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등교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에 활력소가 되며 저녁 늦게 공부를 마치고 하교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동료들과 같이 점심·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적당한 시간, 잡담을 즐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결코 시간낭비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3학년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의 공부방식은 매일매일 나갈 분량을 정하고 반드시 그 분량을 완성해 내는 방식이었다.

처음이라 얼떨떨하기도 했지만 그 동안의 공부방법을 과시해보자는 도전감이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제22회 외시 제1차시험에 응시하였다. 그렇지만 합격자 명단에는 내 번호도 이름도 없었고 나중에 알아본 시험성적은 그야말로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형편없는 것이었다.

나의 패인은 공부량이라기보다는 공부방법이었다고 생각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았도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해 본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매일 목표달성으로 한 공부는, 스스로 정한 분량만을 읽어내기에 급급했지 차

분히 음미해서 이해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소위 속빈 강정격이었다고나 할까.

제22회 제1차시험의 불합격은 적어도 나에게서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고시합격예의 길이 까마득히 멀어져가는 느낌이었다. 마침 합격자발표일이 형님의 결혼식 날이었는데, 기뻐해야 할 가족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한 죄책감이 가중되어 나는 스스로 주눅이 든채 방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V. Senior

4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서야 나는 악몽에서 깨어나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이번에는 1차 위주가 아니라 2차 위주의 공부였다. 1차시험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고 또 동시에 치를 2차시험은 아니지만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관련된 과목은 대부분 학교강좌를 수강하였다. 1차도 합격못한 상태에서 기약도 없는 2차대비 공부를 하는 자신이 무모해 보이고 또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여름방학이 다시 찾아왔다. 곧 졸업을 앞둔 대학졸업반으로서 1차 불합격시의 군징집명령에도 대비해야 했던 나는 극동의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대학원에 일단 입학하여 군입대를 연기시켜야 하겠기에 최소한 여름방학만은 대학원 입학공부에 열중하기로 마음 먹었다. 대학원의 선택에도 갈등이 많았는데 외교학과 대학원은, 입학은 다소 수월하겠지만 입학후의 세미나식의 타이트한 강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길 염려가 있었고 행정대학원은, 입학은 아주 어렵겠지만 입학후의 강의는 대학교 때의 강의와 별로 다를 바 없고 또 교수분들께서도 고시공부하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편이라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먼저 시작한 일주일간의 외교학과 대학원 공부를 집어치우고 행정대학원으로 나의 진로를 바꾼 것은 도서관 4열람실에서의 짧은 갈등끝에 내린 순간적인 판단이었다.

이제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가 찾아왔다. 다시 1차시험 공부가 시작되었고 1학기때 수강하지 못했던 2차과목의 수강이 곁들여졌다. 대학원 입학준비는 자연히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예년 같으면 11월말일 경에 치뤄지던 대학원 입학시험이 1월 중순으로 연기되었다는 발표에 나는 허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대학원 입학준비가 소홀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여름방학 두 달 동안의 공부량과 외시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쫓는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대학원 입시는 일단 포기였다.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겨울방학을 맞았다. 외시공부를 해본 분들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겨울은 밍고도 고운 오랜 라이벌과도 같은 계절이다. 성실한 자세로 맞서서 싸워 이겨내면 잊지 못할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어이없이 무릎을 꿇고 나게 되면 한없이 증오스러운 존재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의 불안과 초조감에 떨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서 같이 공부해주고 격려해 준 조영·종석·태석·경식 등의 친구들과 영한·문봉·태진 등의 후배들 덕분이었다. 그들은 잘 몰랐겠지만 그들이 옆에 있음으로 해서 나는 초조한 싸움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해가 바뀌었다. 대학원입시일이 먼저다가왔다. 나는 선택과목을 정치학으로 바꾸고 영어 실력이나 테스트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다. 제23회 외시 1차시험일은 10일 동안은 그 동안에 보았던 기본서를 다시 차근

차근 읽어나가기로 하였다. 1차시험을 이틀 남겨놓고 정치학 책을 뒤적뒤적하고 있을 때였다. 그날은 행정대학원 1차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나는 감히 합격자명단을 보러 갈 엄두도 나지 않았다. 시험이 코앞에 닥쳐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발생했다. 전혀 기대밖이었던 대학원시험에 내가 합격했다고 친구가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것인가. 그때의 기쁨은 지금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것이었다. 1차시험 바로 전날 대학원 면접시험이 있었는데 덩수룩한 머리에 양복을 차려입고 때마침 내리는 눈을 맞으며 면접시험장에 가면서도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바로 다음날의 시험에 대한 걱정도 사라져 버렸다.

다음날 아침, 막내아들 잘 되라고 약하신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정성과 기원을 다하시던 어머니와, 신혼살림에 끼어들어 때만 되면 밥내나라, 옷 빨아라 하는 시동생을 불평 한마디 없이 1년 동안 당신의 남편보다도 더 잘 보살펴 주신 형수님의 배움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무지무지하게 추웠던 시험장에서 빨리 헤어날 것만을 기대했던 기억밖에 없다.

그 며칠 후 대학원 최종합격을 확인하고 나는 최소한 2년간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에 안도하였다. 사실 내가 대학원에 합격하기까지는 영우형의 도움이 컸었다. 그와의 일주일간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학에 관한 그의 해박한 지식이 내게 전달되었는데 그 도움이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며칠동안은 대학원합격에의 기쁨에 젖어 보냈지만, 외시 1차 합격자발표 전날에 와서는 초조감이 엄습해 왔다. 그 초조감은 다음날 희열로 바뀌었지만...

비록 두 마리의 토끼를 쫓지는 못했어도 중

한방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으나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가!

1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번의 패배를 거울삼아서 공부방법을 바꾼 것이 주효했다. 갑자기 공부량이 두배로 늘었던 것도 아니었고 기본서와 문제집을 상당부분 바꾸어 보았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달성식이 아니라 내용이해식의 방법으로 회독수에 개념치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과 특히 암기해야 할 부분에 밑줄을 그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되풀이해서 보았으며, 또한 내게 맞는 기본서와 문제집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문제집이 아니라 다시 기본서를 훑어보는 전략이 성공한 셈이었다.

VI. Graduate School

본격적인 2차시험 공부는 4월정도에야 시작되었던 것 같다. 그동안 대부분 2차관련 과목은 학교에서 수강했지만 책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게 맞다고 생각되는 교재를 택해서 읽어 나갔다. 영어와 독일어는 매일 아침 1~2시간씩 2차시험 직전까지 계속했다. 외국어는 최소한 하루라도 공부를 안하면 복구하는데 3일은 걸린다는 것이 내 철칙이었다.

내 경우는 8월경에 가서야 모든 과목을 겨우 한번씩 훑어본 것 같다. 8월이후에는 책을 한번 다 읽을 때마다 책의 맨 뒷장에다가 날짜를 기입해 두어 전에 읽었던 기간과 대비해 보았다. 차츰 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가을이 왔다. 또 다시 맞이할 나의 라이벌, 겨울을 생각하며 나는 자신이 약해지고 우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후배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가 혜정이다. 시험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를 사

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발적 행위가 아닐 수 없었지만 어쨌든 혜정이는 그런 상태의 나를 희생시켜 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험이 압박해서 사귀었기 때문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만나도 곧 헤어져야만 했던 우리는 매일 전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곤 했었다. 여자를 사귀었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죽기보다 듣기 싫어서 혜정이가 보고싶을수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했다.

북방외교정책실현의 일환으로 외교직 5급 공채 인원을 20명에서 35명으로 늘린다는 희소식에 나는 또 한번 내가 운이 좋은 놈이라는 것을 느꼈다.

제24회 외시 2차시험은 2월 27일부터 시작되었다. 첫날 치른 영어시험에 당황한 나는 시간에 쫓겨 해석·작문을 모두 엉망으로 작성하고는 다음날 시험을 치를 기분이 나질 않았다. 하룻만에 공든 탑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그때 친구들의 격려가 없었더라면 시험을 계속 치르지 못했을 것이고 이 합격기도 남기지 못했을런지도 모른다. 여하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게 시험은 모두 끝이 나 버렸고 나는 거의 탈진상태에서 허탈했다. 시험준비기간이 힘들었던 것도 물론이지만 2차 시험 하루하루의 괴로움은 죽음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평소에 체력을 길러두지 못했던 내가 왜 그렇게 원망스럽고 한심스럽던지...

그럭그럭 2주일이 지나고 친구로부터 2차 합격 소식을 전해듣고는 만감이 교차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말라 있었다.

그런데 나에게 또 다른 불안이 엄습했다. 명예롭지 못한 훈방경력 소유자인 내가 신원 조의를 중요시하는 3차시험에 떨어지는 악몽은 사실 그전부터 꾸어왔으며, 2차공부를 하

는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한번 자리잡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비관적인 종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성적인 신경성 두통에 시달리곤 하였던 것이다. 구여지책으로 대학원의 박소수님을 찾아가 상의드리고 교수님의 친절하신 배려로 위로를 삼아왔었는데 막상 3차시험에 직면하고 보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진저리가 쳐졌던지 잠도 오지 않았다.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3차시험장을 나오면서도 불안감에서 헤어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애태우며 보낸 1주일 후, 최종 3차합격을 알려준 것은 영우형이었다. 그는 나의 대학원 입학의 숨은 공로자이며 3차합격 소식의 메신저였던 것이다. 그리고 시험공부기간 중에 내앞에 나타난 혜정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행운의 여신이었던 것이다.

VII. Epilogue

고시공부는 자기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이다. 나태함, 잡념, 무기력증, 신경증 등과 싸워 이겨내야만 보람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결국 고시합격은 자신과 주위환경의 합작품인 것이다.

나에게는 나보다 더 애태우시며 고향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고, 가족의 따스함을 느끼게 해 주신 하숙집 어머니(나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 형수님과 형님, 누님들이 계셨으며 비록 늦게 나 타났지만 바로 행운의 여신이었던 혜정이가 있었고, 자신들은 못느끼고 있겠지만 누구 못지 않게 나의 합격에 일조한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들이 있었던 것이다. 모두 고마운 이들이다.